

“장애는 벽이 아니다”… 전국기능대회 향한 도전

광주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가보니

그림·나전칠기·자전거 조립 등 분야 21년간 꾸준히 출전·학생 참가자도 “몸 불편해도 꿈 이루기 위해 노력”

“몸이 불편해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해서 공부하고 있으며 꼭 전국대회까지 나가 입상을 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광주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한 ‘2025 광주광역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지난 25일 개막했다.

이번 대회에는 시각디자인, 나전칠기, 그림, 컴퓨터프로그래밍, 자전거 조립, 네일아트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23개 직종에서 156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고 있으며 27일까지 진행된다.

비장애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 기술자들에게는 명예와 미래를 건 엄청난 싸움터다.

26일 광주 북구 한국폴리텍대학 광주 캠퍼스. 이른 시간부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회가 시작되자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분주히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림 부문 참가자들은 신중하고 빠르게 하얀 도화지들을 채워나갔으며 나전칠기 참가자들도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26일 열린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그림 부문에 출전한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들을 뽐내고 있다.

이날 대회장에는 비록 몸은 불편하더라도 열정과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만큼은 비장애인들에게 절대 뒤처지지 않는 참가자들의 의지가 가득했다.

컴퓨터 고치기 부문에 참여한 기만영(53)씨는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실력을 더 높이고 싶어 기능대회에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주최 측에서도 매년 준비를 잘 해줘 내가 가진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 만족스럽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전국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긴 세월 동안 꾸준히 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도 있었다.

21년 동안 기능대회에 출전한 배한성(44)씨는 “지난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받았는데 올해도 꼭 순위권에 들고 싶다. 몸이 불편해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으며 꼭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나전칠기 부문에 참여한 박관우(57)씨도 “미술 관련 일을 하고 있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어느덧 10년째 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며 “대회를 통해 그간의 노력들을 펼칠 수 있어 정말 뿌듯하다. 꿈이 있는 다른 장애인 분들도 경기대회에 참가해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

적게는 몇년, 많게는 수십년을 도전한 참가자들은 성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 참가자들도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었다.

강수연(19)양은 “어렸을 때부터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어 작년에 이어서 또 그림 부문에 출전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고 하루에 3시간은 꼭 그림 그리기에 투자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과에 진학해서 꼭 훌륭한 화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에 심사위원들의 자세도 진지하다.

20년째 심사위원을 맡고있는 조규열(67)씨는 “매번 심사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정말 많이 배운다. 몸이 불편함에도 배우려는 노력과 열정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고 더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대회에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광주광역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역 우수 기능 장애인의 발굴 및 육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와 기업의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대회 금상 수상자는 오는 9월16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이정선 시교육감 “광주교육 르네상스 실현하겠다”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맞춤교육 강화로 실력 향상 AI교육원·공연장 신설 추진 역사·인성교육 체계 강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교육성과를 되짚고, AI·인성·역사교육 등 미래 전략을 제시하며 ‘광주교육 르네상스’를 선언했다.

이 시교육감은 26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학생의 다양한 실력은 교육공동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광주교육이 도약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광주교육은 기초학력 미달률 감소, 수능 성적 향상, 직업계고 학과 개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2022년 8명에서 현재 10배 이상 확대한 결과, 미달 학생 비율은 1% 미만으로 줄었다. ‘1고교 1대입전문디렉터’와 ‘365 스테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6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 광주교육 성과와 앞으로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광주시교육청 제공

룸’ 등 맞춤형 진학 지원책도 성과를 거뒀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직업계고는 마이스터고 도입과 학과 조정으로 지원율이 1.27 대 1까지 상승했다. ‘꿈드림’ 사업과 무상 교통비 지원 등은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예술 감수성을 키우는

‘탈렌트 페스티벌’도 학생 인성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은 광주교육을 전국과 세계로 확장하는 발판이 됐다. 158개 학교에 AI팩토리를 구축하고 교사 연수도 강

화해 디지털 교육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정보공개·민원서비스 등 9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향후 광주시교육청은 총 831억원의 국비를 활용해 본질 중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성생활교육과를 신설해 생활지도와 마음건강을 촘촘히 살피고, 역사·평화교육을 통해 광주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이다.

수학·과학 기초역량 강화와 함께, 오는 2026년에는 북구 오치동에 전국 최초 AI 교육기관인 ‘광주AI교육원’을 개관해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미래형 교육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K-컬처 공연장과 글로벌 청소년 종합스포츠센터 등 학생 전용 공간도 조성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ESG교육도 강화된다. 이 교육감은 “실력 위에 인성을 더해 세계 속 광주교육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책임감 있게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전남 주말 기온 32도까지 치솟아

첫 폭염주의보 발표 가능성도

이번 주말 광주·전남은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겠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7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최저기온은 19~21도, 최고기온은 27~32도가 예보돼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3~4도 가량 높겠다.

체감온도도 33도 내외로 올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토요일인 28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수증기가 유입돼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며 5~50mm의 비가 예보됐다.

이날 오후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최저기온은 22~24도, 최고기온은 27~32도가 예보됐다.

28일 일요일은 다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최저기온은 22~24도, 최고기온은 28~33도로 평년보다 4~5도 가량 높겠다.

이정준 기자

광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절반 이상 만13세

광주해바라기센터 개소 20주년 자료 발표

만13세 가해자 비율 증가 추세

광주지역의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만13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인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가 개소 20주년

(6월29일)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13세 미만 피해자는 지난 20년간 전체 피해자(3523명) 중 55.2%(1947명)로 나타나 저연령층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역 아동·청소년성폭력전담센터인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는 지난

2005년부터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법률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총 3523명의 피해자에게 의료지원, 상담 및 법적지원, 심리지원, 동행지원 등 총 11만6037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가해자 비율은 지난 15년간(2005~2019년) 평균 39.9%, 최근 5년(2020~2024년) 38.9%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만13세 미만의 가해자 비율이 13.9%(2005~2019년)에서

17.8%(2020~2024년)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해 사각지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신 전남대병원장 겸 광주해바라기센터장은 “무엇보다 지난 20년을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과 협력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광주광역시, 전남대병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회복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 지원에 대한 문의는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로 전화(062-232-1375)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